

광고제휴안내

좋은생각

Books and Gifts for the Positive Minds



고객이 먼저 알아보는 「좋은생각」

1. 삶의 가치를 전합니다.
사랑, 배려, 소통, 성실, 희망 등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내기 쉬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2.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한 쪽씩 읽는 구성으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3.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시인, 소설가, 예술가, 과학자, 기업인 등 다양한 전문가가 쓴 글들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4.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와 작가의 말, 격언, 알아 두면 유용한 상식이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시대의 보편을 담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시련을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
로 용기를 얻고
싶을 때
'그러나 수기, 지금, 여기'

삶을 이해하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싶을 때
'나를 흔드는 한마디'

2

할아버지의 첫 책

몇 년 전, '책 보수라는 일을 알릴 겸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목표로 고치는 봉사'를 했다. 하루는 70대 할아버지의 머그리가 책을 맡겼다.

할아버지가 처음 다닌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책이라고 했다. 70년대에 출판된 《강화대유권》이라는 책이었다. 일반 책보다 크기가 큰 데다 쪽수도 많아 무거웠다. 뒷장엔 15000원이라는 가격이 쓰여 있었다. 일주 계산해도 당시에는 꽤 비싼 책이었으리라. 책을 사서 곁에 두고 예지중지했을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다.

작업실에 책이 도착했다. 알마나 자주 보았는지 책은 한눈에 봐도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표지와 책등은 완전히 말려져 나았고 첫 장은 반 정도 찢어져 사라진 상태였다. 속지에는 군데군데 음식물이 된 얼룩과 먼지가 있었다. 찢어진 페이지도 더러워 있었다.

다행히 책은 본본한 실 제본 방식으로 만들어져 낡은 정도에 비해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었다.

속지를 한 장씩 분해하고 정리하며 차근차근 보수했다. 그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생각했다.

무엇이든 쉽게 사고 버리는 요즘 같은 때에 자신의 물건을 가꾸어 두고 아끼며 오래오래 함께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고쳐서까지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긴 시간 애정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자 추억이 되는 것 아닐까. 오래된 물건을 고치는 나의 일이 뿌듯하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보수를 마친 책을 할아버지에게 보냈다. 머그리로부터 할아버지가 무척 기뻐했다는 후일담을 전해 들었다.

이은정 님 | B형디앤디 대표

꽃 앞에서 보라 한다

관장에 가면 이따금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표지는 바래고 글씨도 군데군데 밀어진 두툼한 앨범. 그 안에는 삼 남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간들이 담겨 있다.

워낙 많이 봐서 다음 장에 어떤 사진이 나올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지만 앨범을 볼 때면 여전히 설렌다. 한껏 까불러도 귀여웠던 그 시절 특유의 반짝거림이 있다.

하지만 이후의 사진들에서는 장난스런 표정과 과감한 포즈가 점점 사라진다. 그때처럼, 사춘기가 일찍 와 버린 소녀의 뻣뻣한 모습들은 다른 앨범에 따로 모여 있다.

엄마는 우리 남매를 꽃 앞에 세우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어렸을 때야 카메라 앞에서 별 예쁜 척을 다 했지만 조금 자라는 자꾸 꽃 앞에서 보라고 하는 게 귀찮았다. 어정쩡한 동작과 표정을 한 채 엄마 앞에 섰다.

"좀 웃어 보자……." 하며 아쉬워하는

엄마와 카메라 앞을 떠나기 급급했던 나.

그랬던 내가 이제는 예쁜 꽃만 보면 다 급하게 아이를 부른다. "여기 앞에 서 봐" 아이가 과거의 나와 같은 표정으로 서면 나는 살짝이라도 웃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 애를 쓴다. 아이가 자라 "엄마, 좀" 하며 인상 쓰는 날이 오면 어쩌나 생각하면서.

엄마가 꽃 앞에서 보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가 깨달았다. 아름다운 것 앞에 가장 예쁜 존재를 세우고 싶어서. 그 순간을 남겨 두고 싶어서였다. 엄마 앞에서 좀 더 활짝 웃을걸.

엄마는 여전히 계절마다 피는 꽃, 싱그러운 나무, 이름 모를 알레 사진을 나에게 보낸다. 예쁜 것 보고 웃으라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나는 그때의 엄마처럼, 꽃 앞에서 보라 한다.

김미경 님 | 서주시흥매주

꽃 길은 상어송라이터 루시드들의 밭. '말도 없이 노닐게 된 유채꽃을 보면 그 꽃은 꽃이 다 가족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과 같은 존재라면 이 세상은 어떨 가나 꽃밭만 골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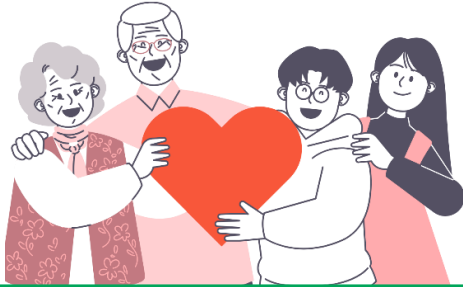
지식과 깨달음을 함께 얻고
싶을 때
'내마음은 빨강, 과학의 눈',
'튼튼한 몸 단단한 맘'

인류애가 샘솟는 에피소드 '
인류애 충전'
만화로 배우는 법(法)
'나를 지키는 법'

좋은생각의 이야기들은 먼 곳의 이야기, 하늘에 떠다니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현실을 땅처럼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구독자들이 인정한 좋은생각의 가치



둘째 딸의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손녀를 돌보게 되었다. 예수를 훌쩍 넘긴 내가 고집 센 손녀를 돌보기란 예상보다 힘들었다. 이런 나의 유일한 낙은 <좋은생각>이다. 책을 톼툼이 읽는 사이 손녀가 10개월이 됐고, 고된 육아도 그럭저럭해 내게 됐다

이경숙 좋은님



나는 열 살이다.우리 가족은 13년 동안 정기구독을 했다. 좋은생각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책을 읽으며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감동적이야”라고 느낀다. 독자들의 이야기와 내가 겪은 일을 비교하고 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 참 좋다.

강보람 좋은님



엄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신청해 주신 <좋은생각> 왜 책을 주시는지 불만이었죠. 그런데 3년째 구독하다 보니 진짜 값진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연을 접하며 내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세상을 눈으로 먼저 접하게 되니까요.

이민정 좋은님



좋은생각

10.5pt

글씨 크기 : 10pt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생각

발행주기 : 월간

판 형 : 150 × 220mm

발행사 : (주)좋은생각사람들

발행부수 : 270,000부 (일반용:120,000부 / 기업용:150,000부)

창간일 : 1992년 8월1일



큰글씨 좋은생각

발행주기 : 월간

판 형 : 180 × 264mm

발행사 : (주)좋은생각사람들

발행부수 : 45,000부 (일반용:25,000부, 기업용:20,000부)

창간일 : 2009년 5월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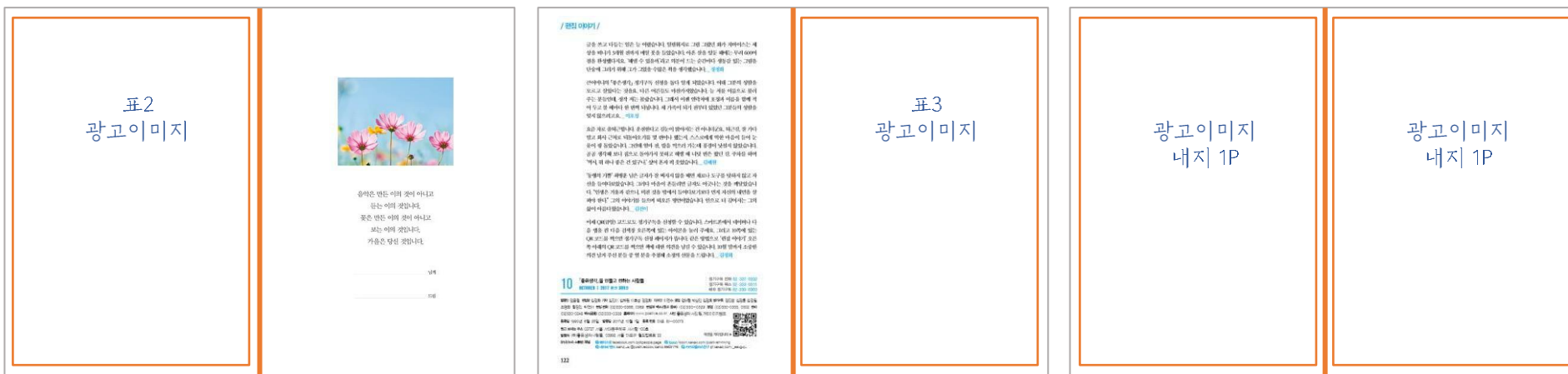
큰글씨 좋은생각
12.5pt

글씨 크기 : 12pt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생각>과 내용은 같고 글씨 크기만 키운 책입니다.

광고 이미지 사양 (좋은생각, 큰글씨 좋은생각 공통)



책의 첫 페이지(표2)

본문 첫 페이지

본문 마지막 페이지

책의 마지막 페이지(표3)

내지 광고(왼쪽)

내지 광고(오른쪽)

[광고 이미지 사양]

156×226mm (사방 3mm 여백포함)

해상도 300dpi 이상, CMYK 모드, ai 또는 pdf 파일

※ 중요한 내용은 꼭 142×210mm내에 포함해 주셔야 재단 작업 시 잘리지 않습니다.

광고문의

(주)좋은생각사람들 정기구독팀

(02) 330-0302 / 010-3431-3992

e-mail : poti@positive.co.kr

positive thinking